



신라의 6村과 山嶽祭祀

Six Chons in Silla and Rites of Mountains

저자 채미하
(Authors) Chai, Mi-ha

출처 [신라사학보](#) , (23), 2011.12, 75-111 (37 pages)
(Source) [SILLASAHAKPO](#) , (23), 2011.12, 75-111 (37 pages)

발행처 [신라사학회](#)
(Publisher)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42512>

APA Style 채미하 (2011). 신라의 6村과 山嶽祭祀. 신라사학보, (23), 75-111.

이용정보 삼성현역사문화관
(Accessed) 183.106.106.***
2021/10/17 11:0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의 6村과 山嶽祭祀*

채 미 하**

I. 머리말	IV. 山嶽祭祀로의 편제와 그 의미
II. 6村과 6村長의 初降地	V. 맺음말
III. 6촌의 변화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우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기록에 보이는 6촌을 비교·검토하였는데, 두 史書에 보이는 6촌과 관련된 기록은 서로 차이가 있으며, 《삼국유사》 내용에서는 착오도 발견되었다. 하지만 《삼국유사》에는 《삼국사기》에 보이지 않는 내용도 반영되어 있었다. 그리고 6촌장의 초강지와 6촌의 촌명을 통해 무산대수촌을 제외한 5촌의 위치가 알천 북쪽

* 이 논문은 2011년도 (재)표암문화재단의 연구지원을 받아, 신라사학회 추계학술대회 ‘신라의 건국과 사로육촌’(2011.10.7., 경주 힐튼호텔)에서 공개 발표를 거쳐 이루어졌음.

** 경희대학교 사학과 강사.

주요 논저 : <실학자들의 신라사 연구방법과 그 해석> 《한국고대사연구》 62, 2011 : <신라의 賓禮 - 唐 사신을 중심으로 -> 《한국사학보》 43, 2011 : <신라의 軍禮 수용과 王權> 《한국사연구》 149, 2010 : <신라 국왕의 視學과 그 의미> 《한국사상사학》 32, 2009외 다수

내지는 알천과 가까운 지역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원래의 6촌 사회는 조선유민들에 의해 형성되었지만 6촌 안에는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하게 되었고, 6촌 세력의 시조는 天에서 峰 또는 山과 연결되어 그들의 시조신화가 변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선도산의 서술성모설화는 신라 중고기를 전후한 시기에 혁거세·알영세력과 6촌 세력과의 관계가 새롭게 규정된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6촌 사회는 시조의 초강지나 그 지역의 산들을 신성시하였고 그 곳에 제사지내면서 그들의 공동체를 공고히 하였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신라는 이들 산악을 신라 국가제사에 편제하였는데, 이것은 각 지역이 신라의 지배에 들어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다른 5촌과는 달리 알천양산촌(양부) 지역의 산악은 신라 국가제사에 편제되지 않았다. 이것은 알천양산촌(양부)이 다른 5촌(부)과는 그 위상이 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주제어 : 신라, 6촌, 산악제사, 6촌, 6부, 알천양산촌, 양부, 무산대수촌, 선도산, 서술성모설화

I. 머리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보면 신라사의 첫 머리에 6촌 신화가 나온다. 이에 연구자들은 여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를 통해 6촌의 위치라든가 그 사회의 성격, 그리고 6촌과 신라 6부와의 관계 등¹⁾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면 6촌의 위치를 후대의 6부 범위까지를 포함시켜 이해하고 있다. 6촌과 6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현재 6촌과 6부의 계기성은 어느 정도 인정

1) 이와 관련된 諸견해는 본문의 내용과 각주 참고.

하고 있다. 6촌과 6부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도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때 6촌의 범위와 6부의 범위는 구분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6촌 신화를 후대에 부회되었다고 보기도 하지만, 신화는 사회적 경험이 객관화된 것으로 여기에는 일정한 역사적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 역시 6촌 사회의 기반과 그 기반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였다. 하지만 6촌이 6부로 변하면서 6촌 안에는 6촌 세력 외에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다. 6촌 세력과 새로 들어온 다른 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6촌 세력은 그 기반이 변하였을 것이다. 이에 여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또한 6촌과 관련된 기록이 신라 역사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이유도 궁금하다. 이것은 6촌 사회의 견고성, 공고성과 관련있지 않을까 한다. 신라 사회에서 공동체의 공고성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산악과 관련 있는 신앙이었다. 신라는 고대국가로 성장하면서 산악들을 대·중·소사체계라는 국가제사에 편제하였다. 그러하다면 6촌과 관련 있는 산악들도 신라 국가제사에 편제되었을 것인데, 이들 산악이 신라 국가제사에 편제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보이는 6촌과 관련된 사료를 비교·검토하고 6촌장의 初降地와 村名을 통해 6촌의 위치를 생각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 6촌 세력의 기반이 다른 세력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검토해 볼 것이다. 그리고 6촌과 관련 있었던 산악이 신라의 국가제사에 편제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신라 6촌 사회의 여러 모습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6村과 6村長의 初降地

다음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보이는 6촌과 관련된 사료이다.

- A-1. ① 先是 朝鮮遺民分居山谷之間 爲六村 一曰關川楊山村 二曰突山高墟村 三曰鬻山珍支村<或云干珍村> 四曰茂山大樹村 五曰金山加利村 六曰明活山高耶村 是爲辰韓六部.²⁾
- ② 春 改六部之名 仍賜姓 楊山部爲梁部 姓李 高墟部爲沙梁部 姓崔 大樹部爲漸梁部<一云牟梁> 姓孫 干珍部爲本彼部 姓鄭 加利部爲漢祇部 姓裴 明活部爲習比部 姓薛.³⁾
2. ① 辰韓之地 古有六村 一曰關川楊山村 南今曇巖寺 長曰謁平 初降于瓢嶺峰 是爲及梁部李氏祖<弩禮王九年置 名及梁部 本朝太祖天福五年庚子 改名中興部 波潛東山彼上東村屬焉> 二曰突山高墟村 長曰蘇伐都利 初降于兄山 是爲沙梁部<梁讀云道 或作涿 亦音道>鄭氏祖 今曰南山部 仇良伐麻等烏道北廻德等南村屬焉<稱今曰者 太祖所置也 下例知> 三曰茂山大樹村 長曰俱<一作仇>禮馬 初降于伊山<一作皆比山> 是爲漸梁<一作涿>部 又牟梁部孫氏之祖 今云長福部 朴谷村等西村屬焉 四曰鬻山珍支村<一作賓之 又賓子 又氷之> 長曰智伯虎 初降于花山 是爲本彼部崔氏祖 今曰通仙部 柴巴等東南村屬焉 致遠乃本彼部人也 今皇龍寺南味吞寺南有古墟 云是崔侯古宅也 殆明矣 五曰金山加里村<今金剛山栢栗寺之北山也> 長曰祗沱<一作只他> 初降于明活山 是爲漢歧部 又作韓歧部裴氏祖 今云加德部 上下西知乃兒等東村屬焉 六曰明活山高耶村 長曰虎珍 初降于金剛山 是爲習比部薛氏祖 今臨川部 勿伊村仍仇旽村關谷<一作葛谷>等東北村屬焉 按上文 此六部之祖 似皆從天而降.⁴⁾

2)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시조 혁거세거서간 즉위년.

3)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유리이사금 9년.

- ② 弩禮王九年始改六部名 又賜六姓 今俗中興部爲母 長福部爲父 臨川部爲子 加德部爲女 其實未詳⁵⁾

위의 사료 A-1 ①에 따르면 朝鮮遺民들이 山谷 사이에 나뉘어 살아 6村을 이루었는데, 첫째는 闕川楊山村, 둘째는 突山高墟村, 셋째는 觜山珍支村(干珍村), 넷째는 茂山大樹村, 다섯째는 金山加利村, 여섯째는 明活山高耶村이라 하였으며 이것은 辰韓 六部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A-1 ②에는 유리왕 9년 봄에 6부의 이름을 고치고 姓을 내렸는데, 楊山部는 梁部로 성은 李, 高墟部는 沙梁部로 성은 崔, 大樹部는 漸梁(牟梁)部로 성은 孫, 干珍部는 本彼部로 성은 鄭, 加利部는 漢祇部로 성은 裴, 明活部는 習比部로 성은 薛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사료 A-2 ①의 《삼국유사》에도 보이는데, 진한 땅에는 옛날 6村이 있었다(辰韓之地 古有六村)고 한다. 첫째는 闕川楊山村, 村長은 謁平이고 瓢嶽峰에 내려왔으며 及梁部 이씨의 조상이다. 둘째는 突山高墟村, 촌장은 蘇伐都利이고 兄山에 내려왔으며 사랑부 정씨의 조상이다. 셋째는 茂山大樹村, 촌장은 俱(仇)禮馬이고 伊山(皆比山)에 내려왔으며 漸梁部 또는 牟梁部 손씨의 조상이다. 넷째는 觜山珍支村, 촌장은 智伯虎이고 花山에 내려왔으며 本彼部 최씨의 조상이다. 다섯째는 金山加里村, 촌장은 祇沓(只他)이고 明活山에 내려왔으며 漢歧部(韓歧部) 배씨의 조상이다. 여섯째는 明活山高耶村, 촌장은 虎珍이고 금강산에 내려왔으며 習比部 설씨의 조상이다. 그리고 사료 A-2 ②를 보면 노례왕 9년에 6부의 이름을 고치고 성을 하사했다고 한다.

4) 《삼국유사》 권1, 기이1, 신라시조 혁거세왕.

5) 《삼국유사》 권1, 기이1, 신라시조 혁거세왕.

이상의 사료 A의 내용을 살펴보면 辰韓에 6촌⁶⁾이 있었고 이것은 유리왕 9년 진한의 6部⁷⁾가 되었으며 각 부에 姓⁸⁾이 하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A-1 ①과 A-2 ①에 보이는 6촌 중 자산진지촌과 무산대수촌의 순서와 돌산고허촌과 자산진지촌의 姓이 바뀌어 기록되어 있다. A-2 ①에는 금산가리촌의 촌장이 初降한 곳은 명활산이며 명활산고야촌의 촌장이 초강한 장소는 금강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서로 뒤바뀐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A-1 ①과 A-2 ①에 보이는 6촌과 관련된 자료에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자료의 문제인지 아니면 편찬자의 착오인지는 잘 알 수 없다. A-2 ①의 내용에는 불명확한 점도 발견된다. 그렇지만 A-2 ①의 내용은 A-1 ①에는 보이지 않는 6촌장의 이름과 시조의 초강지를 알 수 있다. A-2 ①에는 고려 6부에 대한 내용도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신라의 6부가 고려 6부로 재편된 사실과 고려 6부의 범위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려 6부의 시점은 ‘稱今曰者 太祖所置也 下例知’로 보아 고려 태조 천복 5년(940)이다. 이 때 급량부는 증흥부,

-
- 6) 우리나라에서 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시기는 3세기말의 《삼국지》 단계이기 때문에 6촌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한다(전덕재, 《신라6부체제연구》, 일조각, 1996).
 - 7) 6촌과 6부의 관계를 계기적으로 이해하는 견해(이종욱, 《신라국가형성사 연구》, 일조각, 1982, 222~225쪽), 후대의 부회로 보는 견해(주보돈, <삼국시대의 귀족과 신분제> 《한국사회발전사론》, 일조각, 1992, 10~11쪽; 전덕재, <상고기 신라6부의 성격에 대한 고찰> 《신라문화》12, 1995 : 앞의 책, 1996, 10~13쪽; 강중훈, 《신라상고사연구》, 서울대 출판부, 2000, 218쪽)가 있다. 그리고 6촌에서 6부로 발전한 시점에 대해서 기록을 신빙하여 유리아사급대로 보기도 하고(이종욱, 앞의 책, 1982, 222~225쪽), 일부는 그 시기를 뒤로 늦추어 파악하기도 한다.
 - 8) 신라에서의 성씨 사용은 6세기 중엽 혹은 6세기 후반 무렵이라고 보기도 하고(이순근, <신라시대 성씨취득과 그 의미> 《한국사론》 6, 1980, 11~21쪽) 통일기 이후 6부성과 6부를 연결시키기도 한다(전덕재, 같은 책, 1996)

사랑부는 남산부, 점량부(모량부)는 장복부, 본피부는 통선부, 한기부는 가덕부, 습비부는 임천부라고 하였다.⁹⁾

사료 A-2 ②를 보면 일연은 ‘今俗’에서 중흥부를 어머니로 삼고 장복부를 아버지로 삼고 임천부를 아들로 삼고 가덕부를 딸로 삼는데, 그 까닭은 자세하지 않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今俗’의 ‘今’은 일연이 살았던 당대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사료 A-2 ①에서 알천양산촌의 남쪽에 지금(수) 담업사가 있다고 한 것, 금산가리촌은 지금(수)의 금강산 백률사 북쪽 산이라는 것, 최치원은 본피부 사람이니 지금(수)도 皇龍寺 남쪽과 味吞寺 남쪽에 崔侯의 옛 집이 있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앞의 사료 A-1 ②를 보면 6촌은 신라 6부로 개칭되기 전에 알천양산촌은 양산부, 돌산고허촌은 고허부, 금산가리촌은 가리부, 자산진지촌은 간진부, 무산대수촌은 대수부로 불렸다. 이런 점에서 이들 촌은 시조의 초강지에서 그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도 생각된다. 그러나 명활산고야촌의 경우는 명활부로 불렸다. 따라서 명활산고야촌은 시조의 탄강지인 명활산 주변을 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앞의 사료 A-1 ①을 보면 6촌은 알천양산촌, 돌산고허촌, 자산진지촌, 무산대수촌, 금산가리촌, 명활산고야촌 순서로 되어 있다. 하지만 A-1 ②와 A-2 ①에는 무산대수촌이 자산진지촌 앞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6촌 세력간의 위상에도 변화가 있었음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에서 살펴 본 6촌과 관련된 내용을 <표 1>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 이 내용은 《고려사》 권57, 지11 지리2 경상도 동경유수관 경주조에도 보인다.

〈표 1〉 신라의 6촌

辰韓 六村	촌장	초강지	진한 6부		성	고려 6부	고려 촌(지명)
關川楊山村	謁平	瓢嶽峰	양산부	(及)梁部	李	中興部(母)	波潛·東山·彼上·東村
突山高墟村	蘇伐都利	兄山	고허부	사랑부	최(정)	南山部	仇良伐·麻等烏 道北·廻德 등 南村
髡山珍支村	智伯虎	花山	간진부	本彼部	정(최)	通仙部	柴巴 등 東南村
茂山大樹村	俱禮馬	伊山	대수부	漸梁部 (모량부)	손	長福部(父)	朴谷村 등 西村
金山加利村	祗沓	明活山	가리부	漢歧部 (韓歧部)	배	加德部(女)	上下西知·乃兒 등 東村
明活山高耶村	虎珍	금강산	명활부	習比部	설	臨川部(子)	勿伊村·仍仇彌村·鬪谷(葛谷) 등 東北村

한편 앞의 사료 A-1 ①에는 혁거세의 사로국 건국 이전에 고조선의 유민이 山谷之間에 分居하여 6촌을 이루었으며 이것이 나중에 진한 6부로 발전하였다고 하였다. A-2 ①에는 ‘辰韓之地 固有六村’하였다면서 6촌장을 ‘六部之祖’라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6촌은 사로국 보다는 진한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6촌의 위치를 경북·충북 일대에 분포되었다고 한다.¹⁰⁾ 반면 6촌을 사로국의 모체¹¹⁾로 보면서 6촌의 범위를 경주 내지는 경주 분지,¹²⁾ 경주시와

10) 末松保和, <新羅六部考>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235~307쪽; 김철준, <신라상대사회의 Dual Organization(상)> 《역사학보》 1, 1952, 15~47쪽; 《한국고대사회연구》, 지식산업사, 1975; 천관우, <삼한의 국가형성(상)> 《한국학보》 2, 1976, 21~24쪽; 문경현, 《신라사연구》, 경북대 출판부, 1983, 76쪽; 서의식, <‘진한6촌’의 성격과 위치> 《신라문화》 21, 2003, 161~166쪽.

11) 이에 6촌을 사로6촌이라 부른다. 그렇지만 ‘사로6촌’은 신조어로 보고(선석열, <<삼국사기>신라본기 초기기록 문제와 신라 국가의 성립>, 부산

월성군 일대로 보고 있다.¹³⁾ 이러한 6촌¹⁴⁾의 위치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표 2>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신라의 6촌 위치

	알천양산촌	돌산고허촌	자산진지촌	무산대수촌	금산가리촌	명활산고야촌
말송보화	경주	상주	성주	?	?	?
김철준	경주	옥천·상주	?	제천-예천	김천-성주	경주-영천
천관우	경주	상주	영해 울진	의성-예천	개령-성주	경산-영천
금서룡	경주읍 남쪽	남천상류	남천 하류	모량천	?	남천 하류

대 박사학위논문, 1996 : <신라국가성립과정연구>, 해안, 1997, 58~78쪽 ; 서의식, <신라 6부에 대한 논의와 한국사의 체계적 이해> 《역사와 현실》 24, 1997, 201쪽) 사로 6촌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서의식, 앞의 논문, 2003, 142~152쪽).

- 12) 今西龍, <新羅骨品考> 《新羅史研究》, 1933 ; 이병도, 《한국사》 - 고대편 -, 을유문화사, 1959, 365~369쪽 ; 이병도, <신라의 기원문제>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599~603쪽 ; 정중환, <사로6촌과 6촌인의 출자에 대하여> 《역사학보》 17·18, 1962 ; 김원룡, <사로6촌과 경주교분> 《역사학보》 70, 1976, 5~12쪽 ; 이기동, <신라금입택고> 《신라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1984, 194쪽 ; 김정배, 《한국고대의 국가기원과 형성》, 고려대 출판부, 1986, 322~329쪽 ; 오영훈, <신라왕경에 대한 고찰>,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88, 16~19쪽 ; 이형우, <신라 초기국가 성장사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1992, 17~18쪽 ; 권오영, <사로6촌의 위치문제와 성격> 《신라문화》 14, 1996, 7~10쪽 ; 이기봉, <신라 왕경의 범위와 구역에 대한 지리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22~24쪽 ; 박홍국·정상주·김지훈, <사로 6촌의 위치에 대한 시론> 《신라문화》 21, 2003, 129~131쪽.
- 13) 현재의 경주시 安康邑과 陽南·陽北面을 제외한 경주시 일원으로 보았다 (이종욱, 앞의 책, 1982, 22~23쪽).
- 14) 진한 6촌설과 사로6촌설에 대해 김수태, <신라의 국가형성> 《신라문화》 21, 2003, 57~59쪽도 참고.

	알천양산촌	돌산고허촌	자산진지촌	무산대수촌	금산가리촌	명활산고아촌
이병도	남산북· 남천남	남천북· 북천남	인왕리	모량천	소금강산	명활산
김원룡	월성 남산 서북	서악동일대 교동·노서동	인왕동 탈해 왕릉	모량리 금척 리	소금강산	보문동
이종욱	월성	오릉·산내면	외동면	모량천 서 면	천북면 (양남·양북면)	명활산
오영훈	월성 부근	남산 북쪽	조양동 부근	鶴城 부근	명활산 부근	황성동 일대
이형우	알천남쪽 남산북쪽 지역 (남천유역)	남산·남천의 서쪽 沙正里	월성·황룡사 부근	효현동·모량 건천 일대	천북면 일대	명활산 동북쪽 보문동 일대
권오영	.	.	경주 동남부 '조양동' 등	모량천 서 면 '솔羅里'	경주 북부 '황성동' 등	.
이기봉	경주시내 ·見谷面	5릉 남쪽 내 남면 및 울 주군 두서면 남부	월성·남산- 명활산 남쪽 유역에서 入 室 남쪽까지	서면·건천읍	감포읍·양 북·양남면 및 북천 상류	천북면 일대
박홍국· 정상주· 김지훈	인왕·황남·황 오동고분군 및 월성동남 방 하안단구	오릉과 포석 정 사이의 하 안단구·남산 서북쪽	형제봉의 남 쪽·도지동 형 산마을·조양 동·구정동 서 남부	금척리·건천 리·천포리· 조전리 일대	현덕왕릉 서 북편 평지 황 성동 일대	명활산 서편단 구 또는 구릉지 대·남산의 동편

※ 박홍국·정상주·김지훈, <사로 6촌의 위치에 대한 시론> 《신라문화》 21, 2003, 119~120쪽의 <표 1>과 131쪽의 <표 3> 참고.

위의 <표 2>에 보이는 위치 비정은 문헌 자료, 금석문 자료, 고고학 자료에 의한 것이다. 그렇지만 앞서서도 살펴보았지만, 문헌 자료는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게다가 6촌장의 초강지 중 화산과 이산(개비산), 무산이라든가 6촌의 촌명에 보이는 돌산·자산·금산 등의 산 이름은 다른 자료에도 보이지 않는다. 금산가리촌의 경우 일연은 지금의 금강산 백률사 북쪽 산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고려 초의 지명을 보면 상·하서지촌이 보인다. 이 곳은 지금의 양남면에 해당하

는 곳이다. 돌산고허촌의 경우 구량벌¹⁵⁾은 울주군 두서면에 해당한다. 이처럼 금산가리촌과 돌산고허촌은 고려 6부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자산진지촌의 범위와 관련해서 일연은 본피부 사람인 최치원의 옛 집터가 지금도 皇龍寺 남쪽과 味吞寺 남쪽에 있다고 하였다. 황룡사는 지금의 경상북도 경주시 月城 동쪽에 있었으며 미탄사는 지금의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狼山 서쪽에 있었던 사찰이다.¹⁶⁾ 이로 볼 때 자산진지촌은 신라 6부의 하나인 본피부의 범위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기왕의 위치 비정은 원래의 6촌이 아닌 이 보다 확장된 신라 6부와 고려 6부의 범위까지를 포함시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원래의 6촌은 어디에 있었을까. 이에 6촌장의 초강지와 6촌의 촌명이 관심을 끈다. 촌명 중 알천양산촌은 알천과 양산 두 지역이 합쳐진 복합명사로 보여지며 앞의 것은 시조의 탄강지와 가까운 지역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것은 다른 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알천양산촌의 시조가 초강한 곳은 표암봉으로, 표암봉은 현재의 경주 동천리에 있다. 그리고 촌명의 알천¹⁷⁾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이하 《승람》이라고 함)에는 北川 혹은 東川이라고도 하며 府의 동쪽 5리에 있다고 한다.¹⁸⁾ 양산은 후술되는 사료 D에 따르면 혁거세가 태

1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1, 경주부 驛院에 보이는 仇良火村으로 지금의 경북 울산군 두서면 구량리에 해당한다.

16) 강인구 외, 《역주 삼국유사》 1, 이회문화사, 2002, 229쪽.

17) 현재의 알천과 6촌 당시의 알천은 같지 않는데, 이것은 流路의 변화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박홍국·정상주·김지훈, 앞의 논문, 2003, 123~125쪽 참조.

18)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1, 경주부 산천. 알천을 현재 경주시 北川에 비정하는 견해(三品彰英, 《三國遺事考証》(上), 塙書房, 1975, 416쪽)와 경주시 南川에 비정하는 견해(김원룡, 앞의 논문, 1976) 등이 있다.

어난 蘿井이 있었던 곳으로 나정은 《승람》에 부의 남쪽 7리에 있다고 한다.¹⁹⁾ 이로 볼 때 양산은 지금의 南山일 것이다. 그리고 일연은 알천양산촌 남쪽에 담엄사가 있다고 하였다.

돌산고허촌의 시조 탄강지는 형산이다. 《승람》 경주부 산천조에 따르면 형산은 안강현 동쪽 21리에 있으며 신라는 북형산이라 칭하고 중사로 삼았다고 한다.²⁰⁾ 북형산은 경북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에 있는 형산이다. 그리고 경주 서쪽에 위치한 선도산을 형산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²¹⁾ 왜냐하면 북형산이 고허촌과는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삼국사기》 제사지 신라조(이하 제사지 신라조라 함)를 보면 선도산, 서술은 모량에 있다고 한다. 이에 형산을 서형산으로 보기 보다는 북형산으로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한다. 촌명에 보이는 돌산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고허는 《삼국유사》 탑상 천룡사조에 남산의 남쪽에 고위산이 있고 거기에 천룡사가 있다고 한다.²²⁾ 돌산고허촌의 마등오촌과 천룡사 등의 관계 기사로 볼 때 고위와 고허는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다.²³⁾

자산진지촌의 시조는 화산에 내려왔다. 화산은 《동경통지》에 경주부 북 30리에 있다고 하며 현재의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가 그 곳이 아닐까 한다. 촌명에 보이는 자산과 진지의 현재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신라 금입택의 하나인 賓之宅이 反香寺 북쪽에 있다²⁴⁾고 하는

19)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1, 경주부 고적.

2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1, 경주부 산천. “兄山(在安康縣東二十一里 新羅稱北兄山爲中祀)”.

21) 三品彰英, 앞의 책, 1975, 420~421쪽.

22) 《삼국유사》 권3, 탑상4, 천룡사. “東都南山之南 有一峰屹起 俗云高位山 山之陽有寺 俚云高寺 惑云天龍寺 … 俗傳云 逆水者 州之南 馬等烏村 南流川是 又是水之窠 致天龍寺 …”.

23) 박방룡, <신라-도성·성지-> 《한국사론》 15, 1985, 379~381쪽.

24) 《삼국유사》 권1, 기이1, 진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무산대수촌의 시조가 내려온 이산(개비산)과 촌명에 보이는 무산과 대수촌의 위치는 알 수 없지만, 기왕의 위치 비정을 보면 무산대수촌은 대체로 경주 서편의 毛良에 비정하고 있다.²⁵⁾ 그리고 금산가리촌 시조는 금강산에 내려왔는데, 《승람》에는 경주부의 북쪽 7리에 있으며 北嶽이라고도 불렀다고 하며²⁶⁾ 현재 경주의 소금강산이다. 금산과 가리의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일연이 금산가리촌은 지금의 金剛山 栢栗寺 북쪽 산이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소금강산 일대 지역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명활산고야촌 시조가 내려온 명활산은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과 보문동에 걸쳐 있는 산이고 고야의 현재 위치는 알 수 없다.

알천을 중심으로 6촌의 위치를 볼 때 알천양산촌과 자산진지촌, 금산가리촌의 경우는 알천 북쪽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명활산고야촌의 경우는 알천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 이로 볼 때 4촌은 알천 북쪽 내지는 알천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돌산고허촌은 알천을 넘어 경주분지, 남산 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로 볼 때 무산대수촌은 알천양산촌을 비롯한 5촌과는 지역적으로 구분되어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상에서 신라의 6촌과 관련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을 비교·검토하였고 시조의 초강지와 촌명으로 원래의 6촌 범위를 생각해 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6촌의 기반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이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살펴해보도록 한다.

25) 舍羅里 일대의 목관묘와 목곽묘를 무산대수촌과 연결지어 이해하고 있다.

26)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1, 경주부 산천.

Ⅲ. 6촌의 변화

6촌의 기반과 관련해서 우선 사료 A-1)①을 보면 朝鮮遺民들이 산곡 사이에 나뉘어 살아 6촌을 이루었다(朝鮮遺民分居山谷之間 爲六村)고 하는 것이 관심을 끈다. 6촌을 이룬 것이 朝鮮遺民이라는 점과 관련해서 다음 기록이 주목된다.

B. 辰韓 在馬韓之東 其耆老傳世 自言古之亡人 避秦役來適韓國 馬韓割其東界地與之.²⁷⁾

위의 사료 B를 보면 辰韓 耆老의 말을 빌어 秦나라의 고역을 피해 남하하는 유민들이 밀려들자, 마한이 이들에게 동쪽 땅을 따로 내주어 독자적으로 살게 함으로써 진한이 성립되었다고 한다.²⁸⁾ 그리고 진한 언어 중에 중국계 방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²⁹⁾ 이로 볼 때 사료 B는 辰韓이 마치 중국의 秦나라에서 연유한 듯 서술되어 있지만, 다음이 관심을 끈다.

C. 前此 中國之人 苦秦亂東來者衆 多處馬韓東 與辰韓雜居.³⁰⁾

위의 사료 C에서는 이전에 중국인들이 秦의 난리를 피로위하여 동

27) 《삼국지》 권30, 위서30, 동이30, 한.

28) 이와 관련해서 《진서》 권97, 열전67, 진한 및 《양서》 권54, 열전48, 신라전 참조.

29) 《삼국지》 권30, 위서30 동이30 한. “相呼皆爲徒，有似秦人 非但燕·齊之名物也 名樂浪人爲阿殘 東方人名我爲阿 謂樂浪人本其殘餘人 今有名之爲秦韓者 始有六國，稍分爲十二國”.

30)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시조혁거세거서간 38년.

쪽으로 온 자들이 많았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마한 동쪽에 자리잡고 辰韓과 잡거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중국 유민이 많았으나, 마한 동쪽에서 진한과 뒤섞여 산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³¹⁾

다 아다시피 위만조선의 성립과 더불어 한반도 남부로 유민들은 이동하였다.³²⁾ 그리고 철기문화를 지닌 부여계의 백제와 위만조선 및 漢族 流民이 남하하기 이전에는 진한과 변한은 마한에 예속되어 있었다. 고고학적인 유물들에서도 청동기문화단계의 마한 소국연맹체가 진한이나 변한보다 선진집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³³⁾ 6촌의 기반이 된 朝鮮遺民은 燕의 동방 경략부터 준왕이 남천할 때 까지 유망한 세력으로 혁거세집단보다 먼저 경주일대에 정착했다. 전자는 비파형동검과 이형 청동기를 지닌 유민이고 후자는 세형동검과 주조철부를 지닌 집단이었다고 한다.³⁴⁾

이러한 6촌은³⁵⁾ 후술되는 D-2를 보면 6촌장들이 關川 언덕 위에

31) 이와 관련하여 《삼국지》 권30, 위서30 동이30 한(其十二國屬辰王 辰王常用馬韓人作之 世世相繼 辰王不得自立爲王), 《후한서》 권85, 동이열전75 한(馬韓最大 共立其種爲辰王 都目支國 盡王三韓之地 其諸國王先皆是馬韓種人爲),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혁거세거서간 38년 봄 2월에 瓠公을 馬韓에 보내 예를 갖추니 마한 왕이 호공을 꾸짖어 말한 “辰韓·卞韓은 우리의 속국인데 …”라는 기록도 참조된다.

32) 《삼국지》 권30, 위서30 동이30 한. “魏略曰 初 右渠未破時 朝鮮相歷谿卿以諫右渠不用 東之辰國 時民隨出居者二千餘戶 … 桓·靈之末, 韓濊疆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도 참고된다.

33) 이현혜, 《삼국사회형성과정연구》, 일조각, 1982, 37~45쪽.

34) 이상은 김병곤, <사로 6촌의 출자와 촌장의 사회적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22, 2001, 132~140쪽 : 《신라 왕권 성장사 연구》, 학연문화사, 2003 참조. 한편 고조선 유민의 남하는 위만정권의 수립과 漢 武帝의 고조선 침입이 주요한 계기가 되었는데, 고고학 자료에서도 입증된다고 한다(이종욱, 앞의 책, 1982, 16쪽 ; 이현혜, 앞의 책, 1982, 53~70쪽).

35) 6촌의 사회적 성격을 혈연과 지연으로 결합된 씨족사회(이병도, 앞의 책, 1976, 600쪽 ; 김병곤, 앞의 논문, 2001, 137쪽)로 계급(Rank)을 가진 혈연집

모여 “우리들이 위로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임금에 없어 백성들이 모두 방종하여 제멋대로 놀고 있으니 덕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어 그를 임금으로 삼아 나라를 창건하고 도움을 정”하는 것을 의논하였다. 그리고 D-1에서는 6부인들이 새로운 세력인 혁거세를 받들어 왕으로 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촌의 시조들이 혁거세를 맞이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가락국의 9간 이 수로왕을 맞이하는 것도 관심을 끈다. 그 내용을 보면 가락국에는 9간이 있었고 이들이 3월 계육일에 구지봉에 모여 수로왕을 맞는 제의를 주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³⁶⁾ 이것은 6촌장이 혁거세를 맞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6촌이 6부로 개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로왕은 9간들의 이름을 바꾸었다.³⁷⁾

그리고 6촌 중 혁거세를 맞이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세력과 관련해서는, 다음이 관심을 끈다.

- D-1. 高墟村長蘇伐公 望楊山麓 蘿井傍林間 有馬跪而嘶 則往觀之 忽不見馬 只有大卵 剖之 有嬰兒出焉 則收而養之 及年十餘歲 岐嶷然 夙成 六部人以其生神異 推尊之 至是立爲君焉 辰人謂瓠爲朴 以初大卵如瓠 故以朴爲姓 居西干 辰言王<或云呼貴人之稱>.³⁸⁾
2. 前漢地節元年壬子<古本云建德元年 又云建元三年等 皆誤> 三月朔 六部祖各率子弟 俱會於關川岸上 議曰 我輩上無君主 臨理蒸民 民皆放逸 自從所欲 盍覓有德人 爲之君主 立邦設都乎 於時乘高南望 楊山下蘿井傍 異氣如電光垂地 有一白馬跪拜之狀 尋檢之 有一紫卵<一云青大卵> 馬見人長嘶上天 剖其卵得童男 形儀端美 驚

단으로서의 氏族(Clan) 社會인 酋長社會(Chiefdom)(이종욱, 앞의 책, 1982, 17~47쪽), 촌락공동체인 소연맹국으로 보기도 한다(김두진, <신라 6촌장 신화의 모습과 그 의미> 《신라문화》 21, 2003, 108쪽).

36) 《삼국유사》 권2, 기이2 가락국기.

37) 《삼국유사》 권2, 기이2 가락국기.

38)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혁거세거서간 즉위년.

異之 浴於東泉<東泉寺在詞腦野北> 身生光彩 鳥獸率天地振舞 動日月清明 因名赫居世王<蓋鄉言也 或作弗矩內王 言光明理世也說者云 是西述聖母之所誕也 故中華人讚仙桃聖母 有娠賢肇邦之語是也 乃至雞龍現瑞產闕英 又焉知非西述聖母之所現耶>.³⁹⁾

위의 사료 D-1에서는 혁거세를 맞이하고 그를 기른 것은 고허촌 장 소벌공으로 나오지만, D-2에서는 6촌의 촌장이 모두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알천양산촌은 6촌 중 제일 먼저 나온다. 그리고 새로운 임금을 맞이하기 위한 6촌의 촌장 회의가 알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혁거세가 발견된 장소는 楊山麓 蘿井傍 林間(D-1), 楊山下 蘿井傍(D-2)이다. 또한 혁거세는 알의 형태로 처음 발견되었는데 알평이 박에서 나왔다고 하는 표암, 박바위 전설⁴⁰⁾은 알에서 나온 박혁거세와 거의 유사하다. 즉 표암봉의 표는 박을 뜻하며 혁거세의 알 또한 박으로 인식된다.⁴¹⁾

다음은 알영 설화이다.

- E-1. 春正月 龍見於闕英井 右脇誕生女兒 老嫗見而異之 收養之 以井名名之.⁴²⁾
2. 時人爭賀曰 今天子已降 宜覓有德女君配之 是日沙梁里闕英井<一作娥利英井>邊 有雞龍現而左脇誕生童女<一云龍現死 而剖其腹得之> 姿容殊麗 然而唇似雞觜 將浴於月城北川 其觜撥落 因名其川曰撥川 營宮室於南山西麓<昌林寺>.⁴³⁾

39) 《삼국유사》 권1, 기이1 신라시조 혁거세왕.

40) 《東京雜記》에 따르면, 신라 때 이 바위가 국도에 해를 끼친다고 하여 박씨를 심어 이 바위를 덮었으므로 이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41) 임재해, <맥락적 해석에 의한 김알지 신화와 신라 문화의 정체성 재인식> 《비교민속학》 33, 2007, 580~581쪽.

42)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혁거세거서간 5년.

43) 《삼국유사》 권1, 기이1 신라 시조 혁거세왕.

위의 사료 E-1·2를 보면 알영이 알영정에서 용(계룡)의 오른쪽(왼쪽)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E-2에서는 알영정의 위치를 사랑리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E-1에서 老嫗⁴⁴⁾가 알영을 발견하였다고 하는데, 노구는 사랑리의 노구였을 것이다.

이처럼 혁거세와 알영을 맞이한 세력은 알천양산촌과 돌산고허촌 세력이었다. 사료 E-2에서 혁거세와 알영을 키운 곳은 남산 서쪽으로, 알천양산촌과 돌산고허촌의 영역 내에 있었던 것이다. 이로 볼 때 사로국이 형성되기 이전 알천양산촌과 돌산고허촌 안에는 이들 세력 외에도 다른세력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알천양산촌과 돌산고허촌은 사로국에 편제되면서 보다 다양한 세력이 이 지역에 들어왔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모습은 금산가리촌에서도 찾아진다.

금산가리촌은 사로국 건국 후 한지부로 바뀌었다. 한지부는 탈해 집단과 관련있는데, 탈해가 처음 도착한 곳은 《삼국사기》에는 진한의 阿珍浦口라고 하며 《삼국유사》에는 계림의 동쪽 하서지촌 아진포 <지금도 상서지와 하서지촌명이 있다>라고 한다.⁴⁵⁾ 아진포의 위치는 경북 영일 지방⁴⁶⁾ 혹은 감포로 보기도 하나,⁴⁷⁾ 지금의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와 하서리 일대⁴⁸⁾로 여겨진다. 그리고 지마이사금 즉위년조를 보면 파사왕과 태자가 한기부를 지날 때 허루가 잔치를 베풀어 그들을 대접하였다고 한다. 이로 볼 때 허루는 한기부 내에 거주하고

44) 노구와 관련하여 최광식, <삼국사기 소재 老嫗의 성격> 《사총》 25, 1981, 7~12쪽 참조.

45)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탈해이사금 즉위년 및 《삼국유사》 권1, 기이1 제4대 탈해왕 참조.

46) 이병도, 앞의 책, 1977.

47) 친관우, 《고조선사·삼한사연구》, 일조각, 1989, 283쪽 ; 정중환, 《가라사연구》, 해안, 2000, 68쪽.

48) 三品彰英, 앞의 책, 1975, 488쪽 ; 이형우, 《신라초기국가형성사연구》, 영남대 출판부, 2000, 58~62쪽.

있었고 지마왕의 왕비 간택 때에 경쟁한 마제 또한 거기에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⁴⁹⁾

한편 앞의 사료 A-2 ①을 보면 6촌(부)의 시조들은 모두 峰 또는 山에 내려왔는데, 일연은 6부의 조상들이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다(按上文 此六部之祖 似皆從天而降)고 하였다. 고조선 건국신화를 보면 환인의 아들 환웅이 태백산 정상 神檀樹에 내려와 神市를 펼치는데,⁵⁰⁾ 이러한 단군신화의 내용과 같은 천손강림의 신화를 6촌장들은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⁵¹⁾

고대인들은 높은 산을 하늘과 인간의 교섭처로 생각하였다. 즉 천신이 높은 산에 내려와 인간과 교통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산은 天祭를 지내는 제사장소이기도 하였다.⁵²⁾ 무산대수촌의 대수(촌)는 신단수를 생각하게도 하는데, 신단수는 천·지·지하계의 접합점에 있는 성역

49)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지마이사금 즉위년. “祇摩尼師今立<或云祇味> 娑娑王嫡子 母史省夫人 妃金氏愛禮夫人 葛文王摩帝之女也 初娑娑王獵於楡澗之澤 太子從焉 獵後過韓歧部 伊滄許婁饗之 酒酣 許婁之妻携少女子出舞 摩帝伊滄之妻亦引出其女 太子見而悅之 許婁不悅 王謂許婁曰 此地名大庖 公於此置盛饌美醞 以宴衍之 宜位酒多在伊滄之上 以摩帝之女配太子焉 酒多後云角干”.

50) 《삼국유사》 권1, 기이1 고조선. “古記云 昔有桓因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神壇樹下 謂之神市 …”.

51) 6촌장의 천신하강 내용은 고조선에서 이주해 온 천신족으로서 자부심을 내세운 것으로 해석(조동일, 《한국문화통사》, 지식산업사, 1982, 9쪽), 고조선계 유이민이 경주에 정착하면서 자신들의 신화를 꾸렸는데, 이주민이기 때문에 천신하강 구조로 하였다는 해석(이지영, 《한국신화의 神格 유래에 관한 연구》, 태학사, 1995, 62쪽), 고조선 유민들이 진한 지역에 밀려와 정착하면서 북방에서 가져온 자기 신화를 되살려낸 것이라는 해석(조현철, <건국신화의 형성과 재편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7, 137~138쪽) 등이 있다. 한편 6촌장의 천강설화는 후대에 꾸며진 것이라고 한다(이병도, 앞의 책, 1976, 598쪽).

52) 《서경》 순전. “至于岱宗柴”.

이고 만물이 생성되며 太儀를 재현하는 聖壇을 상징한다고 한다.⁵³⁾

이처럼 6촌의 시조는 천강설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사료를 보면 6촌의 시조들은 “처음에 峰 또는 山에 내려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6촌의 시조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峰 또는 山에 내려온 것으로 기록된 것은 혁거세신화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정리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 본 가락 9간의 시조전승이 6촌의 시조와는 달리 천과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9간의 시조 전승 역시 천강신화였을 것이고 수로왕 신화가 성립할 때 배제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앞의 사료 D-2에서 혁거세는 서술성모가 낳았고 계룡이 알영을 낳았다는 것도 서술성모의 현신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도 주목된다.

- F-1. 眞平王朝 有比丘尼名智惠 多賢行 住安興寺 擬新修佛殿而力未也 夢一女仙風儀婣約 珠翠飾鬢 來慰曰 我是仙桃山神母也 喜汝欲修佛殿 願施金十斤以助之 宜取金於予座下 粧點主尊三像 壁上繪五十三佛 六類聖衆 及諸天神 五岳神君<羅時五岳 謂東吐含山 南智異山 西雞龍 北太伯 中父岳 亦云公山也> 每春秋二季之十日 叢會善男善女 廣爲一切含靈 設占察法會以爲恒規(本朝屈弗池龍 託夢於帝 請於靈鷲山長開藥師道場 □平海途 其事亦同) 惠乃驚覺 率徒往神祠座下 掘得黃金一百六十兩 克就乃功 皆依神母所諭 其事唯存 而法事廢矣
2. 神母本中國帝室之女 名娑蘇 早得神仙之術 歸止海東 久而不還 父皇寄書繫足云 隨鶻所止爲家 蘇得書放鶻 飛到此山而止 遂來宅爲地仙 故名西鶻山 神母久據茲山 鎮祐邦國 靈異甚多 有國已來 常爲三祀之一 秩在群望之上
 3. 第五十四景明王好使鶻 嘗登此放鶻而失之 禱於神母曰 若得鶻 當封爵 俄而鶻飛來止机上 因封爵大王焉
 4. 其始到辰韓也 生聖子爲東國始君 蓋赫居闕英二聖之所自也.⁵⁴⁾

53) 황폐강, <단군신화의 연구> 《단군신화론집》, 새문사, 1988, 78쪽.

54) 《삼국유사》 권5, 감통7 선도산성모수희불사.

위의 사료 F-2를 보면 신모는 본래 중국 황실의 딸인 娑蘇로 해동에 와서 오래 머물고 돌아가지 않다가 마침내 西巖山에 와서 살고 地仙이 되었다고 한다. F-4에서는 처음 진한에 이르러 성자를 낳아 동국의 처음 임금이라고 하되, 혁거세왕과 알영부인의 두 성인이 유래하였다고 한다.⁵⁵⁾

앞의 사료 D·E에서 살펴보았듯이, 알천양산촌과 돌산고허촌은 혁거세, 알영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그런데 혁거세와 알영을 낳은 신모는 선도산성모로 나타난다. 선도산은 신라에서 西巖, 西述, 西兄이라고도 불렸다.⁵⁶⁾ 이러한 선도산은 제사지 신라조에 모량에 있다고 한다. 모량은 무산대수촌이 있었던 곳으로 무산대수촌의 시조는 이산(개비산)에 내려왔고 촌명에는 무산도 보인다. 그렇다면 혁거세, 알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모가 선도산과 관련된 이유가 궁금하다.

이사금시기 박·석·김 3성의 왕위 교대로 박씨에서 석씨, 석씨에서 김씨로 왕위가 넘어가면서 혁거세와 알영 세력은 새로운 세력인 알지를 시조로 하는 김씨세력에게 그 기반을 넘겨주지 않았을까 한다. 이에 알천양산촌, 돌산고허촌 세력과 관련이 있었던 혁거세, 알영세력은 그 중심지를 옮겼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곳이 선도산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무산대수촌 지역은 다른 5촌과는 지역적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이에 혁거세·알영 세력은 무산

55)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를 낳았다고 전해지는 선도성모 혹은 선도신모는 본래 도교의 女仙으로 한반도에 건너와 선도산에 정착한 이른바 도래신이다(이와 관련하여 정재서, <도교 설화의 정치적 專有와 민족 정체성> 《도교문화연구》 31, 2009, 16~19쪽 참조). 그리고 선도성모 설화의 도교적인 색채와 관련해서는 김태식, <고대 동아시아 서왕모 신앙 속의 신라 선도산성모> 《문화사학》 27, 2007 참조.

56) 홍순욱, <신라 삼산·오악에 대하여>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4, 1991, 46쪽 ; 최광식,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994, 317쪽.

대수촌, 모랑부 세력과 연합하지 않았을까 한다. 신라 중고기 모랑부 박씨 왕비족의 등장은 이러한 배경과 연결지어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의 사료 F-2·4에서 서술성모는 중국 황실의 딸인 지소가 진한에 와 혁거세와 알영을 낳고 성모로 숭앙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선도성모가 중국에서 도래한 시기는 진한 때로 여기에는 일정한 역사적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 이것은 6촌의 시조들이 조선유민이라는 것과 연결지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면 서연산의 서술성모 설화는 신라 중고기를 전후한 어느 시기에 혁거세·알영세력과 이전의 6촌세력과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한 것으로 여겨도 좋을 것이다.⁵⁷⁾ 이와 관련해서 다음도 관심을 끈다.

G. 按崔致遠釋利貞傳云 伽倻山神正見母主 乃爲天神夷毗訶之所感 生大伽倻王惱窳朱日⁵⁸⁾金官國王惱窳青齋二人.⁵⁹⁾

위의 사료 G는 최치원의 《석이정전》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가야산신 正見母主는 천신 이미가지에 감응되어 대가야왕 뇌질주일과 금관국왕 뇌질청예를 낳았다고 한다. 해인사 정견천왕사에 모셔진 정견은 본래 대가야의 황후로 죽어서 가야산 산신이 되었다고 한다.⁶⁰⁾

57) 임재해는 6촌신화는 단군신화의 부계인 환웅신화를 계승하고 선도성모신화는 모계인 곰네 신화를 계승한 것이라고 하였다. 즉 모계신화는 선도성모가 혁거세를 낳은 출생신화로, 부계신화는 혁거세를 발견한 난생신화로 분화되고 발전되어 전승되고 기록되었다고 한다(앞의 논문, 2007, 590쪽).

58) 《삼국사기》 권34, 잡지3 지리1 고령군조에는 대가야국의 시조는 伊珍阿歧王(內珍朱智)라고 한다.

59)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9, 고령현 건치연혁.

6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0, 합천군 사묘. “正見天王祠(在海印寺中 俗傳

주지하듯이 《삼국유사》가락국기를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알에서 수로가 금관가야를 건국했으며 바다를 건너온 허황후와 결혼함으로써 건국을 완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위의 사료 G를 보면 정견모주가 천신에 감응되어 금관가야와 대가야의 시조를 낳았다는 것이다.⁶¹⁾ 이 설화는 금관가야와 대가야의 연맹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서술성모를 6촌 세력과 연결지어 이해해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9간 세력이 가야산신 정견모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한다.

이상에서 6촌의 기반은 사로국이 건국되고 신라라는 고대국가로 발전하면서 변화되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특히 6촌은 산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산악은 신라 국가제사에 편제된다. 이것이 지니는 의미와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 하겠다.

IV. 山嶽祭祀로의 편제와 그 의미

신라의 산악제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제사지 신라조의 대·중·소사에 편제되어 있는 三山·五嶽 이하의 名山大川이다.⁶²⁾ 여기에는 산과 친(海;4해 중 북해 제외, 4독) 이외에도 城(북형산성, 도서성, 가림성), 진(청해진), 기타명(동진 온말근, 남진 해취야리, 중사의 표제

大伽倻國王后正見 死爲山神”.

61) 가야의 신화와 그 의례에 대해서 나희라, <대가야의 신화와 의례> 《대가야의 정신세계》 참조.

62) 《삼국사기》 권32, 잡지1, 제사. 이와 관련해서 채미하, <신라 명산대천의 사전 편제 이유와 특징> 《민속학연구》 20, 2007 :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해안, 2008 참조.

명이 없는 기타 6곳 중 추심과 상조음거서) 등이 나온다. 이 중 산은 나무나 숲과 함께 신이 하강하는 장소이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였으며 후대에는 신의 거처이며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되었다.

이러한 산에 대한 제사는 단순한 산신에 대한 숭배가 아니라 그 지역을 수호하는 신에 대한 숭배였다.⁶³⁾ 그리고 산신은 대부분 조상신이었다.⁶⁴⁾ 신라 국가제사에 편제되어 있는 삼산은 원래의 성읍국가 사로가 고대국가 신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왕경 중심의 지배집단의 제사대상이었다고 하는데서⁶⁵⁾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산신에 대한 숭배는 수렵문화단계부터 안으로는 사회 내부의 결속과 규범을 유지하게 했고 밖으로는 사회 단위집단들의 독자성과 폐쇄성을 뒷받침했다. 그리고 금속문화가 유입되고 농업생산으로 전환이 이루어져 생산력이 증가되고 사회통합이 진전된 단계에 와서도 산신 숭배는 여전히 읍락 중심의 사회질서를 뒷받침하는 기능을 발휘했다.⁶⁶⁾ 이와 같은 산신에 대한 숭배는 이를 거행하는 여러 방식에 의해 그것을 매개로 지역민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을 수 있었을 것이다.⁶⁷⁾

63) 명산대천제사의 대상은 자연적인 산악 자체이기 보다는 산악의 주재자라고 믿고 있는 산신에 대한 제사였다(이기백,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1974, 207쪽 ; 문경현, <신라의 산악숭배와 산신> 《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 12, 1992, 21~26쪽).

64) 산신은 대체로 각 지역의 조상신이라고 한다(문경현, 같은 논문, 1992, 26~28쪽). 이와 관련한 여러 연구성과와 견해는 채미하, 앞의 논문, 2007 : 앞의 책, 2008, 303~330쪽 참조.

65) 이기백, <신라 삼산의 의의> 《중보 한국고대사론》, 일조각, 1995, 147쪽.

66) 서영대, <한국고대 신관념의 사회적 의미>,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1, 89쪽, 91쪽.

67) 고려 왕실의 시조인 虎景은 산신으로서 平那郡人들에 의해 제사되었다는 설화가 전하고 있는데(《고려사》 권1, 세기1, 고려세계), 이는 실제의 사실이 아니더라도 평나산 산신이 평나군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서 관할하였던 사정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박호원, <고려의 산신신앙> 《민

이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6촌 세력들 역시 시조의 탄강지 내지는 그 지역의 산들이 신성시되었고 그 곳에 제사지내면서 그들의 공동체를 공고히 하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신라가 고대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들 산악은 신라 국가제사에 편제되기도 하였고 국가제사의 제장이 되기도 하였다.⁶⁸⁾

먼저 돌산고허촌(사랑부)의 경우 시조의 탄강지인 형산과 촌명에 보이는 고허가 관심을 끈다. 제사지 신라조에는 중사 중 기타 6곳 중의 하나로, 북형산성이 포함되어 있다. 통일 전 신라 경주를 사방으로 방어한 것은 명활산성(동), 서형산성(서), 남산성(남), 북형산성(북)이었다. 이 중 북형산성은 형산강 아래 줄기와 포항 일대가 한 눈에 들어와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적들과 특히 동해안으로 침입해 오는 왜적을 막는 장소로는 가장 적당한 입지조건을 갖춘 곳이다.⁶⁹⁾

高墟는 沙梁에 있다고 한다.⁷⁰⁾ 고허성은 남산의 고위산을 감싸고 있는 석성으로, 진평왕 48년(626)에 축조되었다.⁷¹⁾ 고허성은 7세기대 도성 방비를 위해 축조하였으나, 통일 이후 성곽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이후 그 기능이 외곽의 관문성으로 옮겨졌다고 한다.⁷²⁾ 이로 볼 때 관문성 축조 이후 고허성은 그 전보다는 위상에 변화가 있었겠지만, 그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소사에 편제된 것이 아닐까 한다.

자산진지촌(본피부) 세력의 크기는 문무왕 2년 김유신과 김인문에

속학연구》 2, 1995, 177~179쪽).

68) 6부에 있다고 여겨지는 祭場과 관련해서 김두진, <신라 김알지신화의 형성과 신궁> 《이기백선생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상), 2003, 8~14쪽 : <한국고대의 건국신화와 제의>, 일조각 참조.

69) 신라에서 행한 城에 대한 제사와 관련해서 채미하, <신라의 城제사와 그 의미> 《역사민속학》 30, 2009 참고.

70) 《삼국사기》 권32, 잡지1, 제사. “小祀 … 高墟<沙梁>”.

71)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평왕 48년. “築高墟城”.

7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남산》(본문·해설편), 2002, 141쪽.

게 전공을 따져 본피공의 재물, 전장, 노복을 반으로 나누어 주었다고 한 것⁷³⁾에서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본피공은 본피부의 본궁(궁전)이었을 것이다.⁷⁴⁾ 제사지 신라조를 보면 영성제를 본피유촌에서 지냈다고 하는 것도 관심을 끈다. 대체로 본피유촌은 낭산 남쪽의 神遊林으로 보고 있다.⁷⁵⁾ 실성이사금 12년에 따르면 狼山에서 일어난 구름이 누각과 같았고 그 향기가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자, 왕은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와 노는 것이니 이 곳은 복 받은 땅이라 하여, 이후부터 사람들이 그 곳에서 나무 베는 일을 금하였다고 한다.⁷⁶⁾ 이처럼 낭산을 성지로 한 전승을 볼 때 신유림은 신라 초기부터 성지로 숭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유림은 전불칠처가람의 하나였으며⁷⁷⁾ 신라에서 전통적으로 신성시되어온 성역이었다.⁷⁸⁾ 아마도 자산진지촌과 관련

73)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2년.

74)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77.

75) 김원룡, 앞의 논문, 1970, 1~14쪽 ; 이병도, 앞의 책, 1977, 497쪽 주 11 ; 신종원, 앞의 책, 1992, 91쪽.

76)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실성이사금 12년. “秋八月 雲起狼山 望之如樓閣 香氣郁然 久而不歇 王謂 是必仙靈降遊 應是福地 從此後 禁人斬伐樹木”.

77) 《삼국유사》 권3, 탐상 阿道基羅. “此國于今不知佛法 爾後三千餘月 雞林有聖王出 大興佛教 其京都內有七處伽藍之墟 一曰 金橋東天鏡林 <今興輪寺 金橋謂四川之橋 俗訛呼云 松橋也 寺自我道始基期 而中廢 至法興王丁未草創 乙卯大開 眞興王畢成> 二曰 三川歧<今永興寺 與興輪開同代> 三曰 龍宮南<今黃龍寺 眞興王癸酉始開> 四曰 龍宮北<今芬皇寺 善德王甲午始開> 五曰 沙川尾<今靈妙寺 善德王乙未始開> 六曰 神遊林<今天王寺 文武王己卯開> 七曰 婿請田<今曇嚴寺> 皆前佛伽藍之墟 法水長流之地”.

78) 삼한시대 소도로 불리었을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이기백, <삼국시대의 불교수용과 그 사회적 의의> 《신라사상사연구》, 일조각, 1986, 29쪽 : <불교의 수용과 고유신앙> 《증보 한국고대사론》, 일조각, 1995, 96~97쪽 참조). 그리고 전불칠처가람은 토착신앙의 제장이거나(최광식, <신라시대 왕경의 제장> 《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 16, 1995, 70~74쪽),

된 신성한 지역의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숲과 나무는 고대인들에게 신들이 하강하거나 거주하는 곳으로 생각되었으며 생명력의 상징으로 신성성을 나타내는 것이었다.⁷⁹⁾ 단군 신화에서 천제의 아들 환웅이 하늘로부터 신단수 아래에 하강하였다든가, 알지 신화에서 始林 숲에 빛이 비치며 나뭇가지에 하늘에서 내려온 황금 궤가 걸려있고 그 나무 아래에서 백계가 울고 있다는 것⁸⁰⁾에서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숲이나 나무는 제사를 지내는 장소, 제장이 되기도 하였다. 제사지 신라조를 보면 문열림은 일월제와 사천상제의 제장 중 하나였고, 박수⁸¹⁾는 사천상제의 제장 중 하나였으며, 혜수는 기우제의 제장이었고 침병수는 사대도제의 남쪽 제장이었다.

무산대수촌(모량부)과 관련해서 제사지 신라조를 보면 모량에 있는 서술과 휘황이 소사에 편제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서술에는 선도성모가 머무르고 있는 산으로, 통일 전 신라에서는 오악의 하나인 서악이었다. 그리고 앞의 사료 F-2를 보면 선도산(서술)은 “有國已來 常爲三祀之一”로 삼국시대 신라에서는 최고의 신성산악으로 숭앙받았으며, F-3을 보면 선도산성모는 경명왕이 잃어버린 때를 찾아 주어 봉작받기도 하였다.

금산가리촌(한기부) 시조의 초강지는 금강산인데, 금강산은 통일 이전 신라의 북악으로 오악의 하나였다. 한기부 안에는 여러 세력이

원시종교적 신성지역으로 보기도 한다(신동하, <신라 불국토사상의 전개 양상과 역사적 의의>,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0, 9~41쪽).

79) 서영대, 앞의 논문, 1991, 271~273쪽; 금장태, 앞의 책, 1994, 77~78쪽; 나희라, <고대 동북아 제민족의 신화, 의례, 군주관> 《진단학보》 99, 2005, 3~4쪽 참고.

80)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1, 탈해이사금 9년. “春三月 金城西始林樹間 有鷄鳴聲 遲明遣瓠公視之 有金色小櫛 掛樹枝 白雞鳴於其下 …”.

81) 박수를 혜수와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신동하, 앞의 논문, 2000, 27쪽).

있었는데, 동악인 토함산은 석씨세력의 상징적 산이다.⁸²⁾ 탈해는 동해에 상륙하여 토함산 위에 올라가서 石塚을 지어 7일을 머물다가 월성으로 진출했다.⁸³⁾ 그리고 문무왕대 탈해 신의 현몽 부탁에 의해 그의 유골을 동악에 묻고 神祠를 지어 國祀를 지냈다고 한다.⁸⁴⁾

명활산고야촌(습비부)과 관련해서 제사지 신라조를 보면 대사의 하나인 나력은 습비부에 있는데,⁸⁵⁾ 나력을 낭산에 비정하기도 한다.⁸⁶⁾ 사성문제의 하나로 습비문이 있는데, 이것은 습비부와 관련된 성문으로 보고 있다.⁸⁷⁾ 제사지 신라조를 보면 선농을 제사지낸 곳은 명활성 남쪽의 웅살곡이라고 한다. 이로 볼 때 웅살곡은 명활성 남쪽 일대 어느 지점으로 추정되는데, 《삼국사기》 지리지 서문의 기록에 의하면 명활성은 월성의 동쪽에 있고 그 둘레가 1,906보라고 하였다.⁸⁸⁾

이처럼 6촌(6부) 중 알천양산촌을 제외한 촌(부)과 관련된 산악 중에는 통일 전 경주 평야 중심으로 형성된 오악에 편제된 것도 있었고⁸⁹⁾ 또한 그 지역에 산성을 쌓아 산성이 국가제사의 대상이 되기도

82) 이기백, <신라 오악의 성립과 그 의의>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1974, 196~198쪽.

83)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탈해이사금 즉위년조 및 《삼국유사》 권1, 기이2, 탈해왕조 참조.

84) 《삼국유사》 권1, 기이2 제4탈해왕.

85) 《삼국유사》 권1, 기이2 김유신조에는 奈林으로 나온다.

86) 이병도, 앞의 책, 1977, 498~499쪽.

87) 여호규, <신라 도성의 공간구성과 왕경제의 성립과정> 《서울학연구》 18, 2002, 72쪽.

88) 《삼국사기》 권34, 잡지3, 지리, 新羅疆界. “又新月城東有明活城 周一千九百六步”. 명활산성은 《삼국사기》 실성왕 4년(405)조에 처음 기록에 나타나고 그 후 자비왕 16년(473)에 성을 고쳐서 동왕 18년(475)부터 소지왕 10년(488)까지 국왕의 居城으로 사용했고, 진흥왕 15년과 진평왕 15년에 수축, 개축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89) 《신증동국여지승람》 21, 경주부, 산천조를 보면 통일 이전 신라에는 동쪽의 토함산, 남쪽의 함월산, 서쪽의 선도산, 북쪽의 금강산이 있다고 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은 국가제사에 편제되지는 않았지만, 신라 국가제사의 제장이 되어 그 신성성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알천양산촌(양부)은 다른 5촌(부)과는 달리 시조의 탄강지가 산이 아닌 峰이고 촌명에 川과 山이 동시에 보인다. 그리고 시조의 초강지인 표암봉 뿐만 아니라 촌명인 알천과 양산은 신성한 장소의 하나였을 것이다. 이 중 알천은 북천으로, 김경신이 북천신에 제사를 지낸 결과 김주원이 북천을 건너지 못하여 김경신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한 것⁹⁰⁾ 관심을 끈다. 김경신은 꿈에서 천관사 우물로 들어갔고, 북천신에 대한 제사를 통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이것은 정치세력의 입장에서 물은 담고 있는 공간을 신성시 여겨 두려워했고, 또한 그러한 장소에서 제사를 지냄으로써 어떤 효과를 기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⁹¹⁾

그리고 양산은 남산이다. 남산은 신라의 신성지역으로, 우선 남산 서북쪽 낮은 구릉 지대에는 박혁거세가 탄생한 곳으로 전하는 나정이 있다. 현강왕이 포석정에 행차했을 때 남산신이 어전에 나타나 춤을 추었다고 한다.⁹²⁾ 남산 주위에는 천관사지⁹³⁾와 천은사지·사제사지가

다. 한편 오악은 북악(金剛嶺)·서악(仙桃山)·남악(남산)·중악·동악(토함산)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있다(이기백, 앞의 책, 1974).

90) 《삼국유사》 권2, 기이2 원성대왕. “伊殮金周元 初爲上宰 王爲角干 居二宰 1) 夢脫幪頭 著素笠 把十二絃琴 入於天官寺井中 2) 覺而使人占之 曰脫幪頭者 失職之兆 把琴者 著枷之兆 入井 入獄之兆 王聞之甚患 杜門不出 3) 于時阿殮餘三<或本餘山>來通謁 王辭以疾不出 再通曰 願得一見 王諾之 阿殮曰 公所忌何事 王具說占夢之由 阿殮與拜曰 此乃吉祥之夢 公若登大位而不遺我 則爲公解之 王乃辟禁左右 而請解之 曰脫幪頭者 人無居上也 著素笠者 冕旒之兆也 把十二絃琴者 十二孫傳世之兆也 入天官井 入宮禁之瑞也 王曰 上有周元 何居上位 阿殮曰 請密祀北川神可矣 從之 4) 未幾 宣德王崩 國人欲奉周元爲王 將迎入宮 家在川北 忽川漲不得渡 王先入宮卽位 上宰之徒衆 皆來附之 拜賀新登之主 是爲元聖大王”.

91) 채미하, <신라의 四海와 四瀆> 《역사민속학》 26, 2008, 30~31쪽.

있고⁹⁴⁾ 남산 주변의 여러 지역은 국가 제사의 제장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이 관심을 끈다.

- H-1. 十二月寅日 新城北門祭八禘 豐年用大牢 凶年用小牢
 2. 立春後亥日 明活城南熊殺谷祭先農 立夏後亥日 新城北門祭中農
 立秋後亥日 蒜園祭後農⁹⁵⁾

위의 사료 H-1에 따르면 신라에서는 12월 寅日에 신성 북문에서 팔자제를 드렸다고 한다. H-2를 보면 신라에서는 입하 후 해일에 신성 북문에서 중농제를 지낸다고 한다. 이러한 팔자제와 중농제를 지낸 신성은 진평왕 13년(591)에 축조된 남산성을 가리키며, 신성 북문은 왕성인 월성과 가장 근접해 있으면서 그 규모가 주변의 다른 성들과 비교할 때 가장 크다.⁹⁶⁾

남산신성 북문에서 이루어진 제사는 농경제사였다. 제사지 신라조에 나오는 농경제사는 중농제사와 후농제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 예전에 나오는 것으로, 이들 제사 날짜는 당 <정관례> 및 <개원례>의 祠畝의 그것과 같다.⁹⁷⁾ 이 중 팔자제사는 農作을 上帝에게 감사드

92) 《삼국유사》 권2, 기이2, 치용랑 망해사. “... 又幸鮑石亭 南山神現舞於御前 左右不見 王獨見之 有人現舞於前 王自作舞 以像示之 神之名或曰祥審 故至今國人傳此舞 曰御舞祥審 或曰御舞山神 或云 旣神出舞 審象其貌 命工摹刻 以示後代 故云象審 或云霜髻舞 此乃以其形稱之 ... ”.

93) 천관사지는 왕궁인 월성에서 월정교를 건너 포석정으로 가는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천관은 천운을 살피거나 국가차원을 제사를 주관하던 자 또는 女司祭로 이해하면서 천관사는 국가에서 직접 경영한 사원으로 보고 있다(이근직, <경주 천관사지 소고> 《경주사학》 20, 2001, 79~84쪽).

94) 천은사와 사제사는 하늘 및 제사와 관련이 깊은 사찰이라고 한다(최광식, 앞의 논문, 1995, 80쪽). 이상의 남산의 신성성과 관련해서 재미하, <隋唐山과 그 성격-祭儀를 중심으로-> 《신라문화》 36, 2010, 44~45쪽 참조.

95) 《삼국사기》 권32, 잡지1, 제사.

9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2, 140쪽.

리는 제사이면서 그 해의 12월에 드리는 歲祭도 된다.⁹⁸⁾ 팔자제사의 희생은 사직의 그것과 같다.⁹⁹⁾ 아마도 팔자제사는 당시 최고의 농경 제사였을 것이다. 중농제사는 신라의 고유한 농경제사로, 중국에서 수용된 농경제사인 팔자제와 함께 신성 북문에서 그 제사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알천양산촌(양부) 지역은 신라 국가제사의 제장은 있었지만, 다른 5촌과는 달리 산악이 신라의 국가제사에 편제되지는 않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지역에서 행해졌던 산악제사는 그 지역의 수호신에 대한 제사였고 또한 그 지역 세력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신라는 고대국가로 발전하면서 각 지역의 산악을 신라의 국가제사에 편제하여 각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였다.¹⁰⁰⁾ 그러하다면 5촌(부) 지역의 산악이 신라 국가제사에 편제되었다는 것은 이 지역이 신라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알천양산촌(양부) 지역의 산악이 국가제사에 편제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5촌(부)과는 다른 알천양산촌(양부)의 위상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사로국 형성부터 왕실 집단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제사지 신라조를 보면 양부에서 部庭祭를 지낸다고 한다. 부정제는 사로의 중핵을 차지해온 喙部の 터줏대감신에 대한 제사¹⁰¹⁾로 보기도 하지만, 6부 전체와 관련된 제사를 양부에서 지낸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97) 이와 관련하여 재미하, <신라의 농경제사와 ‘別祭’> 《국사관논총》 108, 2006 : 앞의 책, 2008 참고.

98) 琴章泰, 앞의 책, 1994, 190~191쪽.

99) 《禮記》王制. “天子社稷 皆大牢 諸侯社稷 皆小牢”.

100) 재미하, 앞의 논문, 2007, 240~242쪽 : 앞의 책, 2008.

101)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35쪽.

이상에서 6촌(부)의 산악들이 신라 국가제사의 제장 또는 국가제사에 편제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들 산악이 신라 국가제사에 편제되었다는 것은 신라 국가가 그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 알천양산촌(양부)의 경우 다른 5촌(5부)과는 달리 산악이 국가제사에 편제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V.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신라의 6촌과 관련있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기사를 비교·검토하고 6촌장의 초장지 등을 통해 6촌의 원래 위치를 상정해 보았다. 그리고 6촌 세력의 기반이 새롭게 등장하는 세력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6촌과 관련 있는 산악들이 신라 국가제사에 편제된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삼국사기》·《삼국유사》 보이는 6촌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 자산진지촌과 무산대수촌의 순서와 돌산고허촌과 자산진지촌의 姓이 바뀌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삼국유사》 내용에는 금산가리촌과 명활산고야촌의 촌장이 初降한 지역이 바뀌어 나온다. 그렇지만 《삼국유사》에는 《삼국사기》에 보이지 않는 6촌장의 이름, 시조의 초강지와 고려 6부에 대한 내용도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6촌의 위치를 본 논문에서는 6촌장의 초강지와 6촌의 촌명을 통해 생각해 보았다. 알천을 중심으로 6촌의 위치를 볼 때 알천양산촌을 비롯한 자산진지촌, 금산가리촌, 명활산고야촌은 알천 북쪽 내지는 알천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돌산고허촌은 알천을 넘어 경주분지, 남산 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로 볼 때 무산대수촌은 알천양산촌을

비슷한 5촌과는 지역적으로 구분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삼국사기》·《삼국유사》에 따르면 6촌을 이룬 것은 朝鮮遺民 이었고 이들 조상들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였다. 이러한 6촌 사회는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세력들이 6촌 지역 안에 존재 하게 되었다. 즉 알천양산촌과 돌산고허촌에는 혁거세와 알영집단이, 무산대수촌에는 탈해 등의 집단이 들어와 6촌 사회의 인적 기반이 변 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혁거세 신화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6촌 세력의 시조는 峰 또는 山과 연결되어 그 사상적 기반도 변하였다. 한편 선도산의 서술성모설화는 신라 중고기를 전후한 어느 시기에 혁거 세와 알영세력과 이전의 6촌 세력과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한 것이라 고 하였다.

신라의 6촌 관련 기록은 신라 역사의 첫머리에 등장한다. 이것은 6 촌 사회의 공고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러한 공동체의 공고성은 산 악과 관련된 신앙이 뒷받침하였다고 보았다. 즉 6촌 사회는 시조의 탄강지 내지는 그 지역의 산들을 신성시하였고 그 곳에 제사지내면서 그들의 공동체를 공고히 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신라가 고대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들 산악은 신라 국가제사에 편제되기도 하였고 국가제사의 제장이 되기도 하였다. 이들 산악이 국가제사에 편제되었 다는 것은 신라 국가가 각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하 였다. 하지만 다른 5촌과는 달리 알천양산촌(양부) 지역은 신라 국가 제사와 관련된 제장은 있었지만, 산악은 신라 국가제사에 편제되지 않았다. 이것은 알천양산촌(양부)이 다른 5촌(부)과는 달리 신라 왕실 집단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중훈, 《신라상고사연구》, 서울대 출판부, 2000.
김병곤, 《신라 왕권 성장사 연구》, 학연문화사, 2003.
김철준, 《한국고대사회연구》, 지식산업사, 1975.
선석열, 《신라국가성립과정연구》, 혜안, 1997.
이종욱, 《신라국가형성사연구》, 일조각, 1982.
이지영, 《한국신화의 神格 유래에 관한 연구》, 태학사, 1995.
이현혜, 《삼국사회형성과정연구》, 일조각, 1982.
전덕재, 《신라육부체제연구》, 일조각, 1996.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지식산업사, 1982.
채미하,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2008.
천관우, 《고조선사·삼한사연구》, 일조각, 1989.
최광식,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994.

2. 논문

- 今西龍, <新羅骨品考> 《新羅史研究》, 1933.
김두진, <신라 6촌장신화의 모습과 그 의미> 《신라문화》 21, 2003.
김원룡, <사로6촌과 경주고분> 《역사학보》 70, 1976.
末松保和, <新羅六部考>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문경현, <신라의 산악숭배와 산신>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12, 1992.
박홍국·정상주·김지훈, <사로 6촌의 위치에 대한 시론> 《신라문화》 21, 2003.

- 서영대, <한국고대 신관념의 사회적 의미>,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1.
- 서의식, <‘진한6촌’의 성격과 위치> 《신라문화》 21, 2003.
- 오영훈, <신라왕경에 대한 고찰>,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88.
- 이기백, <신라 오악의 성립과 그 의의>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1974.
- 이기봉, <신라 왕경의 범위와 구역에 대한 지리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 임재해, <맥락적 해석에 의한 김알지 신화와 신라 문화의 정체성 재인식> 《비교민속학》 33, 2007.
- 정재서, <도교 설화의 정치적 專有와 민족 정체성> 《도교문화연구》 31, 2009.
- 정중환, <사로6촌과 6촌인의 출자에 대하여> 《역사학보》 17·18, 1962.
- 조현설, <건국신화의 형성과 재편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7.
- 주보돈, <삼국시대의 귀족과 신분제> 《한국사회발전사론》, 일조각, 1992.
- 채미하, <신라의 농경제사와 ‘別祭’> 《국사관논총》 108, 2006.
- 채미하, <신라 명산대천의 사전 편제 이유와 특징> 《민속학연구》 20, 2007.
- 채미하, <신라의 四海와 四瀆> 《역사민속학》 26, 2008.
- 채미하, <신라의 城제사와 그 의미> 《역사민속학》 30, 2009.
- 채미하, <陶唐山과 그 성격-祭儀를 중심으로> 《신라문화》 36, 2010.

ABSTRACT

Six Chons in Silla and Rites of Mountains

Chai, Mi-ha

This study first compared and studied myths of Six Chons recorded in *Samgusagi* and *Samgukyusa*, and the records related to Six Chons in those two history books had differences each other and the wrong point was found in *Samgukyusa*. However *Samgukyusa* had some contents which are not reflected in *Samgusagi*. And the location of Six chons except Moosan desoochon was the north of Alcheon or near Alcheon by Chogangji of chief of Six chons and by the names of Six chons.

Secondly, the original society of Six chons was formed by the migrants of Choseon and united the aboriginal with ideas of "Cheon". But there existed various influences in Six chons as the society of Six chons developed, and the progenitor of Six chons was related with 'peak' or 'mountain' so the myths of progenitor was changed accordingly. And the myth of Seosoolseongmo in Seondo mountain was the one regulated the relationship of Hyukgeose. Alying influence and Yookchon influence in the midst period of Silla.

Meanwhile, the society of Six chons sacred the birthplace of progenitor or the near mountains and performed rites to them, which consolidated their community. But Silla organized these mountains under national rites which symbolically showed each region was belonged to the power of Silla. However, the mountain near Alcheon yangsanchon(Yangbu) was not organized

under the national rites of Silla far from other five chons. This meant Alchon yangsanchon(Yangbu) was superior to other five chons(bu) in its position.

Key words: Silla, Six chons, rites of mountain, Six chons, Six bu, Alchon yangsanchon, Yangbu, Moosan desoochon, Seondo mountain, myth of Seosoolsengmo

논문 투고일 : 2011. 10. 1 심사 완료일 : 2011. 12. 5 게재 확정일 : 2011. 12. 20